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

세상을 바꾸는 금융

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헤쳐
붉은 새가 된 사람을
온몸으로 감싸며

일터에서 다치지 말자 죽지 말자 살아야지
시시로 안부를 묻는 우리는

사람만 생각하고 사람에 우네

울어도 울어도 눈물은
바다가 되지 않네 마음의 불을 끌 수 없네

새가 날아오르도록
불이 타오르도록 봐둘 수밖에는 없네

< 문경수 소방관 님의 시 '세화' >

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
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
소방관님들의 노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
KB금융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

Korea Better
KB금융그룹

119 구조대

국민 행복 프로젝트

11월 9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'소방의 날' 입니다

KB 금융그룹